■ 민족문화연구 제83호(2019.05.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345-374.
http://doi.org/10.17948/kcs.2019..83.345

조선 불교조각과 접경지 요동의 종교유산과의 교류 고찰

김경미(金景美)*

목 차

1. 머리말
2. 접경지역 요동의 현황과 종교유산 특징
3. 요동의 불교 유산과 조선 조각양식의 교류
4. 맺음말

국문초록

요동지역은 역사적으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접경유산(Transboundary Heritage)을 지닌 중요한 곳이다. 이 지역은 한족의 영향보다는 우리나라와 북방민족의 세력권에 있었던 시기가 많았던 만큼 다양한 국경유산의 특징을 지닌다. 북방민족에 대한 언급은 『조선왕조실록』, 『국조보감』, 『기재사초』, 『간이집』, 『난중잡록』, 『동계집』 등의 고문헌을 통해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의 생활과 조선과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명에서 온 사신 예겸의 『요해편』(1469)과, 조선의 최부의 『표해록』(1478), 소세양(1486-1562)의 『부경일기』(1533) 등과 같은 중국과 조선의 사행록에서 이들 지역의 사찰관람과 문화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이들 지역은 이항복(1556-1618)이 북경을 다녀온 기록인 『조천록』(1598)을 볼 때 임진왜란 이후 더 많은 조선인들이 이주하여 거주하던 곳이다. 역사적으로 조선과 국경을 접했던 요동지역은 명의 통치권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북방

* 건국대 대학원 세계유산학과 초빙교수.

민족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후금과 몽고의 문화가 유지되던 곳이었으며, 그들이 신봉하던 티베트 불교문화를 지속하고 있었던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지역의 불교문화는 조선시대 태조 원년부터 행해진 부경사행에 참여한 사람들을 통해 조선에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허봉의『조천기』(1574)를 비롯하여 15편의 사행록에는 요동의 백탑사를 비롯한 여러 사찰을 관람하고 그곳의 현황과 사찰 내부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발전한 불교미술 양식은 요녕성 자항사 출토 조각이나 요녕성박물관 소장품을 토대로 볼 때, 티베트지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티베트계 양식을 반영한 조각이 전한다. 특히 티베트계 명대 양식을 보이는 요동지역 조각은 조선시대 불교조각의 양식 발전과 시대 흐름을 같이 한다. 이러한 사신들의 사찰관람은 접경지역이라는 요동의 위치를 통해 이 지역의 종교유산의 특징이 조선내부에 티베트 불교미술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였다. 또한 억불정책으로 인해 새로운 양식의 수용이 어려웠던 시대에 새로운 티베트계 양식이 조선 전반에 걸친 불교미술의 양식으로 발전하는 것에 일정 정도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요동, 접경유산, 조선 전기, 불교조각, 사행록.

1. 머리말

새로운 문화 유입은 대외관계를 통한 교류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성상 중국과의 교류를 통한 문화 수용과 교류가 이루어졌다. 특히, 요동지역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거란족, 여진족, 만주족 같은 여러 북방민족, 그리고 중국의 통치권이 교차되는 곳이었다. 조선시대에도 우리나라와 국경을 통한 문화교류와 더불어 주목되는 지역이다.『조선왕조실록』,『국조보감(國朝寶鑑)』,『기재사초(寄齋史草)』,『간이집(簡易集)』,『난중잡록(亂中雜錄)』,『동계집(桐溪集)』같은 조선시대 기록에는 이 지역을 장악했던 북방민족의 생활형태나 조선과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이 있다. 또한, 조선에 온 명나라 사신 예겸(倪謙, 1415-1479)의『요해편(遼海編)』(1469)과, 조선의 최부(崔溥, 1454-1504)의『표해록(漂海錄)』(1478), 소세양(蘇世讓, 1486-1562)의『부경일기(赴京日記)』(1533)와 같은 여러 편의 사행록에서는 이 지역의 여진족, 거란족, 몽고족 등에 대해 수차례 언급되어 있다. 이를 통해 엿볼 수 있

는 요동지역의 성격은 명의 통치권보다 금나라를 세운 여진족이나 원나라를 세웠던 몽고족의 문화가 독립적으로 유지되는 일종의 정치적 완충지대였다.

그런데, 조선시대는 억불정책으로 새로운 불교미술 양식 유입이 거의 차단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기년작에 나타나는 불교조각 양식은 명나라 황실에서 유행하고 있는 티베트계 양식을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의 유입창구가 어떤 형태로든 열려있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식적인 불교미술의 교류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태조 원년부터 행해진 부경사행(赴京使行)을 통해 본 사찰관람기가 새로운 불교미술 양식이 조선에 불교가 유입될 수 있었던 창구로 하나의 가능성을 열고자 한다. 이와 주목하여 조선 전반기 불교미술 양식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양식 유입의 배경으로 접경지역인 요동지역의 불교유산을 주목하였다. 조선시대 사행록 중에 요동지역을 지나면서 불교사찰인 광우사 백탑을 관람하는 내용이 항상 등장한다. 또한, 북경에서도 사찰 탐방을 하고 있다.

허봉(許篈, 1551-1588)의 『조천기(朝天記)』(1574)를 비롯한 많은 사행록에서 요동의 백탑사(白塔寺)를 비롯한 주요 지역사찰을 관람한 현황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황은 조선 전반기 불교조각에 나타난 새로운 양식이 북경을 통한 유입과 함께 접경지역인 요동의 불교유산을 통해 새로운 양식에 대한 이해를 접하고 수용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당시 그들이 관람했던 요동과 북경의 불교는 서하・요・금・원나라로 들어온 티베트불교이다. 티베트불교는 토번으로 들어온 인도 후기불교가 발전한 형태로 밀교, 라마교, 장전불교로 불리기도 한다.[1)]

본 논문은 요동지역의 불교미술 양식이 티베트불교의 영향을 받은 역사적 배경과 더불어 사행록을 통해 추정되는 사찰유산 현황과 요녕성출토 조각을 비교하여 이 지역 불교미술의 특징이 조선 전반기 불교조각 양식의 변화에

1) 티베트란 용어는 원시기에 토번, 티베트라는 두 명칭을 함께 사용하였는데, 『명사』에는 '서번은 서쪽 강족이 가장 많다. 섬서, 사천, 운남 등지에 흩어져 산다'고 하였고, 『청사』에는 '티베트는 백족, 탕구트족, 티베트로 당나라 때 토번지역이다'고 하였다. 김경미, 「조선전반기 티베트계 명양식 불교미술의 영향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4, 9면.

미치는 관계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억불정책으로 양식의 수용과 발전에 많은 한계를 지녔던 조선시대 불교유산의 제작환경에서 명 왕실에서 유행하는 최신 불교미술 양식인 티베트불교 양식이 조선에서 조성되는 배경에 대한 제안으로 조선 전기 불교미술 연구사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연구로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접경지역 요동의 현황과 종교유산 특징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오가는 길은 전통적으로 낙양-산동-산서-요동을 지나는 육로와 송대부터 항주, 천주에서 시작되는 바닷길이 있다. 지금의 랴오닝성(遼寧省)은 고조선・고구려・ 발해가 위치했던 우리의 옛 영토였고, 여진[遼]・거란[金]・몽고[元]・만주족[淸]의 중심활동지역으로 우리나라로 이어지는 문화의 교섭로였다. 따라서 만주지역(요동+요서)을 중심으로 한 문화의 교류는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고 생각된다.

요동지역의 불교는 요(916-1125)나라 태조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가 여러 부족을 통합한 후 불교사원을 건립하고, 천웅사(天雄寺)를 건립하여 승려 50여 인을 머물게 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교가 발전하였다.[2] 요는 당의 통치제도를 본받아 전국을 上京臨況府(지금의 내몽고 巴林左旗 남쪽), 中京大定府(지금의 내몽고 영성 서쪽), 東京遼陽府(지금의 遼寧省 요양), 南京幽州府(析津府로 개명. 지금의 북경), 西京大同府(지금의 산서성 대동)로 나누어 통치하였다. 상경도는 요의 수도였다고 추정된다.[3] 요를 멸망시킨 금(金)은 요의 행정체제를 따랐다. 요, 금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서쪽 국가는 영하, 감숙, 내몽고 서부, 섬서 북부, 청해 동부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차지한 서하였다.[4] 서하는 토번이 멸망한 후 감숙지역까지 점령하며 티베트불교를 수용하였고, 국경을 마주했던 요, 금나라 지역으로 티베트불교가 전파되는 역할을 한다. 『금사』에 1035년

2) 『요사(遼史)』 卷1 本紀 第一 太祖上. "(…) 是歲以兵討兩治, 以所獲僧崇文等五十人歸西樓, 建天雄寺以居之."; 蔣武雄, 「遼代佛教寺院經濟初探」, 『空大人文學報』 第七期, 國立空中大學人文學系, 2017, 192면 참조.
3) 遼寧省地方志編纂委員會, 『遼寧省志 地理志・建置志』, 遼寧民族出版社, 2002, 213-219면.
4) 杜建錄, 『西夏與周邊民族關係史』, 甘肅文化出版社, 1995, 18-38면.

수도 개봉에 인도 승려 80여 명이 숙박하였고, 11세기에 인도승 자현이 요의 수도에 도착하여 밀교경전을 전래하였는데, 이들은 국경을 접한 서하를 통해 들어왔을 것이다.[5] 이러한 북방민족인 당항족, 여진족, 계단족(거란족)의 활동무대가 조선과 국경선을 맞댄 요동과 바로 연결된다는 점이 주목할 수 있다.

요녕성지역에 불교가 발전한 요나라 이후 현재 심양에는 요와 금대 조성된 여러 기의 탑과 탑내 출토품을 통해 당시 불교미술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원대에는 요양행중서성(遼陽行中書省)으로 통치하였다. 원의 지배를 받은 요동지역의 종교유산 역시 원나라의 종교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게 된다.

원나라는 토번, 서하(1038-1227)와 금(1115-1234)을 차례로 멸망시키면서 티베트지역의 불교를 받아들였다. 오늘날 티베트의 어원인 토번(吐蕃, 633-869)에서는 인도 후기불교가 전래되어 중국 내륙과 다른 형식의 의식불교가 성행하였다. 토번의 불교미술은 토번의 멸망 이후 남조국, 대리국, 구게왕국에서 유지되며, 당항족에 의해 세워진 서하로 연결되었다. 서하는 토번지역과 중원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문화교류의 지리적 요충지의 성격과 더불어 경제문화적으로 토번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토번인과 서하 당항인의 역사는 문화와 역사방면에서 공동의 문화를 가지며 송나라에서는 당항족과 토번의 풍속이 거의 같다고 보았다.[6] 서하가 티베트불교를 믿은 것은 유림굴, 마제사(馬蹄寺), 흑수성, 하란산(賀蘭山), 막고굴 등지의 유적 등을 통해 확인된다. 티베트 미술의 특징은 외래적 예술요소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10-13세기의 서장후홍기미술(西藏后弘期美術)시기에 형성된다.[7] 이때 티베트 불교미술에는 조사당보(祖師唐卡), 고승숭배(高僧崇拜) 사상, 금강계만다라도가 유행했다. 또 여신의 표현이 많아지고, 화려하고 번잡한 장식의 배경도안이 발전하였다. 이때 상야사(桑耶寺), 대조사(大昭寺), 창주사(昌珠寺) 등의 사찰이 창건되면서 사찰장식미술인 조각과 벽화에서 뛰어난 발전을 이루었다.[8]

---

5) 志磐 撰, 『佛祖統紀』 卷45 法運通塞志 十七之十二, 大正藏 卷49 史傳部一 No.2035, 409면; 陳愛峰, 「西夏印度佛教關系考」, 『中國民族宗教綱』 2009年 第2期, 寧夏社會科學, 2009, 104면.
6) 謝繼勝, 「吐藩西夏歷史文化淵源與西夏藏傳繪畫」, 『西藏研究』 2001年 第3期, 西藏社會科學院, 2001, 35면.
7) 張亞莎, 「宋代的西藏美術」, 『西藏大學學報』 第23卷 第1期, 西藏大學學報 編輯部, 2008, 81-82면.
8) 같은 글, 84면.

티베트불교를 중국 내륙에 번창시킨 나라는 원나라이다. 원의 전통적인 종교는 살만교(薩滿教, 巫俗)였다. 원의 불교는 라마교로, Lama란 원래 산스크리트의 'guru'(존경스러운 사람)에 대한 번역어로 티베트불교에서 가장 지배적인 종파인 게룩파(Dge-lugs-pa, 황모파의 교주를 일컫는 칭호)이다. 원 세조는 티베트 살가사의 제5대 조사인 토번의 라마승 파사파(八思巴, 1239-1280)를 지원 6년(1269)에 국사로 삼으면서 티베트불교가 중국 내륙에서 번창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후 원·명·청대 불교미술이 북경지역에서 티베트불교의 성격을 갖게 되는 이유이다. 또 사찰안에도 티베트불교가 영향을 미쳐 사찰 안의 불상이나 사찰배치, 그리고 발(鉢)과 금강령 같은 법기(法器), 당보회화(唐步繪畵), 경변상도[經卷插圖]에 어용풍격(御用風格)을 따라 한인예술가 역시 '서천범상(西天梵相)'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도1. 『적사판장경』 3 변상 부분, 남송-원초.[9]

서하불교 양식이 원대에 발전하는 예로 남송 理宗 紹定 4년(1231)에서 원 영종 지치 2년(1322)에 조성된 『적사판장경(磧砂版藏經)』 사경변상도(도1)를 볼 수 있다.[10] 당시 적사장의 판각을 주도했던 관주파(Tson-kha-pa, 1357

9) 周心慧, 『中國古代佛教版畫集1』, 學苑出版社, 2002, 106면.

10) 『적사장』 목각판화는 모두 여덟 종류이다. 원 세조시기의 것은 송대의 인물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원 성종 大德 6년(1302) 이후의 '河西藏'의 삽도는 西藏-尼泊爾樣式으로 표현되었다. 따라서 적사장 대장경의 판본은 여러 화풍이 나타나는데 『선화박고도』(1123-25)의 판각 장인 '陳昇畵'와 같은 인물로 12세기 전통화풍과 티베트 불교미술의 영향을 받은 조판시기가 元 大德·延祐(1302-1315) 연간

-1419)는 티베트에서 교육을 받은 송강지역의 승려로 북경 홍법사(弘法寺)의 비밀경율론(祕密經律論)을 적사장에 추가시켰다.[11] 티베트 살가파(薩迦派) 승려가 주지로 각인한 적사장 경변상도는 높은 육계, 갸름한 상호, 벗은 상반신 형식을 통해 보통 통견의를 입고 절제된 한족 복식체계를 갖춘 중원내륙의 조각형식보다 관능적인 네팔-티베트계 불교미술 형식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원대 티베트불교가 발전한 까닭은 한족지역에서 발전한 선종불교의 세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 정복지의 회유를 위한 방법으로 승려들을 이용하는 이원적 성격을 지닌 때문이다.[12]

조선시대에 요동지역은 명나라에 속해 있었고, 청을 건국한 만주족의 발원지이다. 명나라 초기에 요동도사를 설치하였으나 곧 만주족의 세력권에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만주족은 청을 건국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명대 요동지역은 독자적인 성격이 강했으며, 오히려 여진족이나 만주족이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하였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조상도 이곳의 여진족 세력을 기반으로 했을 만큼 조선과 이들 민족 간의 이질성이 크지 않았다.[13] 요녕지역에서 요·금의 잔존 민족이 거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명 왕실이 실시한 지방 소수민족에 대한 통치정책 때문이다. 명은 원의 소수민족 통치 체제를 그대로 이어받아, 불교가 번성한 토번지역의 종교지도자인 라마를 제사나 국사의 칭호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였다. 명 태조 홍무 6년(1373)에는 티베트의 각 부족장을 초청하여 북경의 관직과 옥인(玉印), 재물 등을 내렸다. 명 영락 6년(1408)에 티베트 승려의 조공을 받고, 이들을 '관정자혜원지보통국사(灌頂

의 것이 있다. 중국미술전집편집위원회 편, 『중국미술사』 원대권, 인민미술출판사, 1996, 145면; 熊文彬, 「從版畫看西夏佛教藝術對元代內地藏傳佛教藝術的影響」, 『中國藏學』 2003年 第一期, 中國藏學研究中心, 2003 참조.

11) Marsha Weidner ed, "Prajnaparamita Sutra from the Qisha Tripitaka", *Latter Days of the Law: Image of Chinese Buddhism 850-1850*, Spencer Museum of Art: The University of Kansas, 1994, pp.306-308; 李際寧, 『中國板本文化叢書—佛經版本』, 江蘇古籍出版社, 2002, 119-125면; 이승희, 「고려말 조선 초 사천왕상 연구」, 『미술사연구』 제22호, 미술사연구회, 2008, 129면 재인용.

12) 김종철, 「元영향기의 高麗佛教界 動向 硏究」,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97, 30-31면 참조.

13) 황성주, 「朝鮮前期 豆滿江流域에 나타나는 두 개의 '조선'」, 『명청사연구』 제37집, 명청사학회, 2012, 4면 참조.

慈慧圓智普通國師)'로 삼았다. 이후에도 많은 승려들을 국사, 불자, 법왕 등으로 칭하며 원대의 이민족 불교정책을 유지하였다.[14] 명 영락제는 1410년 티베트 대장경을 북경판 『불설부』(bkaḥ ḥgyur: 깡규르)[15]로 번역하여 티베트 불교를 후원하였고, 영종(재위 1435-49, 57-64), 무종(재위 1505-21)시기에는 친티베트 불교정책을 펼쳤다. 무종은 스스로 대경법왕(大慶法王)이라 칭하고, 북경 안에 사찰을 건립하여 주지를 토번사람으로 세울 만큼 티베트불교를 신봉하였다.[16] 이러한 배경 아래 요동지역의 여진족도 티베트 불교문화를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명 왕실의 친티베트 불교정책은 불교를 억제하고자 하는 조선의 입장에서 매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당시 조선 왕실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이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아진다. 태종 8년(1408) 4월에 조선에 온 명나라 사신 황엄은 작은 동불상을 가져와 태상왕에게 드렸고, 창덕궁에서 불상과 불경을 원경왕후에게도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 이때 명에서 가져왔을 불상은 영락제 때 유행하던 티베트계 불상양식일 가능성이 높다. 즉, 이때 들어온 조각 양식은 명 왕실에서 발전하던 티베트 불교미술 양식이라 추정된다. 또한, 요동과 접경지인 황해도의 승려와 노인들에게 명나라에서 간행한 불교음악집 『명칭가곡(名稱歌曲)』(1417)을 읽게 하여 조선이 불교를 억압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17]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적어도 국경지역인 요동지역을 통해 티베트계 불교미술 양식이 조선에 전달될 수 있었던 배경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동지역은 「조공탁묘영기(趙公卓墓瑩記, 1344)」의 요양에서 행중서성 좌

14) 夏金華, 『中國佛教的制度與儀軌』,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2010, 78면.

15) 불설부는 경과 율(율, 반야, 화엄, 보적, 제경, 비밀)을 포함하며, 논소부(bstan ḥgyur: 땐규르)는 찬송, 비밀, 반야, 중관, 경소, 유식, 구사, 율, 본생, 서한, 인명, 성명, 의명, 공교명, 잡을 포함한다. 티베트 대장경은 779년 역경작업이 시작되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불전목록인 '덴칼마(ldan-dkar-ma)'목록이 824년에 완성되었다. 현재 전하는 티베트까지 수록된 가장 방대한 목록으로 이들 티베트대장경은 밀교관계 문헌이 대부분이다. 山口瑞鳳・矢崎正見 지음, 이호근・안영길 옮김, 『티베트불교사』, 민족사, 1990, 106면; 「티베트대장경」, 한국브리태니커온라인, http://premium.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04d3101b005(2019.03.31 검색).

16) 山口瑞鳳・矢崎正見, 앞의 책, 75면.

17) 김경미, 앞의 글, 26-29면.

우사랑중비기위(行中書省 左右司郎中飛騎尉)의 벼슬을 한 조탁(1256-1319)의 묘비에서 보듯이, 요양현군에서 고려인이 원의 관리를 할 만큼 고려인의 영향력과 분포가 큰 곳이었다.[18] 이러한 배경 아래 우리나라와 중국의 접경지역 유산이 서로의 문물교류를 증명한다.

명(1368-1662)이 건국되면서 고려 우왕 11년 5월에 처음 조공로가 개통된 후, 우왕 13년 6월까지 16회의 왕래가 이루어지는데, 요동지역에서 마필교역이 주로 이루어졌다.[19] 고려 말부터 중국과의 교역의 장소로 이용되던 요동은 조선시대에도 국경을 마주한 지역으로 응당 문화교류의 장이 되었을 것이다. 그중 종교유산의 교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불교억압이 심했던 조선시대에 불교 교류의 기록은 거의 없다. 다만, 국가의 공식 외교행사인 사행에 언급된 종교유산을 통해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사행로에서 주목되는 곳은 의주에서 산해관까지 이어지는 요동을 지나는 접경지역이다. 창왕 1년(1389) 6월에 남경까지 다녀온 권근(1352-1409)의 사행로는 개경-압록강-탕참-개주성-용봉참-연산참-□수참-두□참-요동성-안산역-우장역-판교역-십삼산역-사하역-산해위-유관-영평-□주-북평성(전 원구도) 등이었다. 이것은 고려와 명이 바닷길뿐만 아니라 육로도 이용하는 것을 말해준다. 권근이 다녀온 육로 사행길은 조선시대의 '연행길'과 유사한 경로이다.[20] 『열하일기』를 토대로 본 여정은 한양-박천-의주-요양-심양-거류하-소흑산-북진-고령역-산해관-풍윤-옥전-계주-밀운-북구-승덕 등의 사행길이다. 이들 사행길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의주-요양-심양' 등의 지역은 요동반도에 위치한다.[21]

그런데, 사행길에서 요동지역에서 만나는 민족은 한족이 아니라 북방족이 많았던 모양이다. 문종 즉위년에 평안도와 함길도에 나타나는 몽고 병사에

18) 이곡, 「大元 贈 奉訓大夫 遼陽等處行中書省左右司郎中 飛騎尉 遼陽縣君 趙公 墓塋記」(1344), 『稼亭集』 권4.
19) 『고려사』 권135 열전48 우왕 11년 5월; 조규익 외, 『연행록연구총서7—정치・경제・외교』, 학고방, 2006, 24-25면 재인용.
20) 김철웅, 「高麗와 중국 元, 明 교류의 통로」, 『동양학』 제53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13, 66-70면.
21) 김혈조 역, 『열하일기』, 돌베개, 2009; 박지원 저, 고미숙 역, 『세계 최고의 여행기 열하일기』, 북드라망, 2013 등 참조.

대해, "바야흐로 달자(獺子)의 군사가 횡행하고 있으니 방어에 근신하여 혹시라도 해이하지 말고 뜻밖의 변고에 대비하게 하라."는 유시를 비롯하여,[22] 『국조보감』, 『기재사초』, 『간이집』, 『난중잡록』, 『동계집』 등의 고문헌을 통해 조선 초부터 지속적으로 이들에 대한 주의와 국경을 침략한 일에 대응하는 논의가 언급되었다.

예겸의 사행록 『요해편』에는 요녕 일대의 주민이 거란족, 몽고족이라고 하였다.[23] 또한, 최부의 『표해록』에도 '요동성이 요·금·원의 중심지로 북방민족의 주거지였고 여전히 여진인이 산다'고 하였다.[24] 소세양의 『부경일기』에서 교역을 하는 북방민족과 이들을 피하기 위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25] 이항복(1556-1618)의 『조천록』(1598)의 '요양과 광영 일대에 우리나라 백성과 가축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언급에서 임진왜란 이후 생활이 어려워진 조선인이 이곳으로 많이 이주한 모습을 말하고 있다.[26]

조선 후기까지 이곳이 북방민족의 주거지로 있는 상황은 조선 순조 3년

22) 『文宗實錄』 문종 즉위년(1450) 3월 26일. "諭平安 咸吉道監司 都節制使曰: '方今獺子兵橫行, 謹愼防禦, 毋或懈弛, 以備不虞.'"

23) 예겸, 『요해편』, 「노하역에서 연회를 구경하는 호인의 무리」를 보면, '상투와 모직물이 길에 가득하니, 관인이 말하기를 이들은 거란인과 몽고인의 혼혈이라 하였다.'라고 하였다.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2019.03.31 검색).

24) 최부, 『표해록』에는 "요동에 당도하니 이곳은 옛날 우리 고구려의 도읍인데, 오대시대에는 발해국의 소유가 되었으며, 후에는 또 요·금·원의 소유가 되었다. 성안에는 민가가 많아서 강남의 가흥부(嘉興府)와 서로 막상막하였다. 분수령을 지나고 압록강을 건너서 의주성에 들어왔는데, 의주성은 중국인과 여진족이 왕래하는 요충인데도 성의 규모가 좁고 무너져 있으며, (…)"라고 이 지역의 거주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고전종합 DB, http://db.itkc.or.kr/dir/item?grpId=hj#dir/node?grpId=hj&itemId=BT&gubun=book&depth=3&cate1=Z&cate2=&upSeoji=ITKC_BT_1409A&dataGubun=&dataId=ITKC_BT_1409A(2019.03.31 검색).

25) 소세양, 『부경일기』 1533년 2월 9일 자 기록에는, '타안 태영 부욕 삼위 등지에는 달자 등이 항상 매매하러 온다', 3월 18일 자 기록에는, '이들을 피하기 위해 일정을 바꾸어 악천후에 출발하였다'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권인용, 「명 중기 조선의 입명사행」, 『연행록연구총서』 6, 학고방, 2006, 19면; 朶顔 泰寧 富峪 三衛 지역은 몽골과 명 사이에 존재하던 우량카이 지역으로 명대의 문헌에는 명의 屬夷 또는 外蕃으로 표현된다. 王世貞, 「三衛志」, 『明代蒙古漢籍史料匯編』, 內蒙古大學出版社, 2006, 25면; 유은숙, 「우량카이 3위와 몽골·명 관계」, 2013년 명청사학회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자료집: 주변에서 본 명청시대, 2013년 7월 4-5일, 12면 재인용.

26) 이항복, 「朝天錄」 下 己亥四月 二十四日, 『白沙先生別集』 卷五 기사 참조.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grpId=&itemId=BT&gubun=book&depth=4&cate1=Z&cate2=&dataGubun=문체&dataId=ITKC_BT_0260A_0120_020(2019.03.31 검색).

(1803) 음력 10월에 동지사로 중국 연경을 다녀온 이해응(1775-1825)이 지은『계산기정(薊山紀程)』구련성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 어두워져서 구련성에 다다랐다. 이곳은 명나라 때의 鎭江堡로 遊擊將軍을 두었던 곳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9개의 성이 연달아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이 생겼다." 하고 혹은 "甕陽城에서 金과 고려가 대치하고 있을 때 금의 장군 斡魯가 이곳에다 성을 쌓았다고도 한다. 압록강에서부터 柵門까지는 그 사이의 땅을 비워 놓고 彼我의 백성들이 농사와 건축을 못하는 것이, 畝脫地[완충 지대] 같았기 때문에 사신 행차는 반드시 이곳에 이르러서는 露宿을 해야 한다. 위 휘장과 장막을 치고 땅을 파서 온돌 모양 같이 만들어 불을 때는데 이런 장막을 치는 곳이 도합 10여 군데나 된다. (…)"[27]

위 기록에서 보듯이 사신이 국경 너머의 일정 구간은 조선 후기까지도 명·청의 영향권 밖의 지역으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조선 시대의 사행록을 비롯한 여러 기록을 통해서 요녕지역에는 우리 역사서에서 '만자, 달자'라 불리는 북방민족과 많은 조선인이 거주하는 것을 알 수 있다.[28] 따라서 당시 요녕성 지역은 후금 및 몽고의 잔존세력에 의해 그들의 문화가 유지되던 곳이라 하겠다.

즉, 요동지역이 정치적으로 명의 통치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북방민족이 거주하면서 후금 및 몽고의 문화가 유지되는 상황을 사행 기록은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종교유산 또한 그들의 종교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원대불교 이후 라마교라 불리던 원대불교가 여전히 발전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조선 전반기 불교미술의 교류는 명대 문물이 북경을 통해 직접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접경지역 요동에 거주한 북방민족인 몽고족, 여진족 등이 믿었던 티베트계 불교미술이 조선에 들어올 배경이 되었다.

---

27) 이해응,『계산기정』(1803) 卷1.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grpId=&itemId=BT&gubun=book&depth=3&cate1=Z&cate2=&dataGubun=서지&dataId=ITKC_BT_1425A&upSeoji=ITKC_BT_1409A(2019.03.31 검색).

28) 이규경,『五洲衍文長箋散稿』天地篇 地理類. "北方胡種甚多, 不入中原版圖, 或稱蠻子, 或稱獞子, 或稱野人."

3. 요동의 불교 유산과 조선 조각양식의 교류

1) 사행록을 통해 본 요동 불교 유산

조선 전반기 불교미술에서 뾰족하게 높은 정상계주의 등장, 갸름한 얼굴에 긴 허리를 한 날씬한 신체형태, 편단우견의 항마인 수인의 형식과 같은 티베트계 양식의 수용은 가장 큰 변화이다.[29]



도2. 전륜장, 티베트 라모체(小昭寺), ⓒ 주수완.



도3. 광우사 백탑, 금 1161-1189년, 높이 71.21m, 요동성 요양 현성.

이와 같은 현상은 동아시아의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시·공간 안에 나타난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티베트계 양식의 유입은 명나라를 오가던 사행단의 활동 중에 새로운 불교문화를 접하면서 전래될 수 있었던 가능성도 열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의 사행사절은 개국 직후인 태조 원년(1392) 11월에 처음 명나라에 사신을 파견한 이후 절행 및 별행으로 계속하였다. 태조 원년부터 성종 연간(1392-1494)까지 이루어진 부경사행은 669회로 매년 평균 6-7차례 사신이 오갔다.[30] 이때 한양

29) 김경미, 앞의 글, 93-95면 참조. 조선 전반기 조각에는 새롭게 티베트계 양식이 등장하는 현상은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1458)〉, 〈경주 왕룡사원 목조아미타좌상(1466)〉, 〈통도사 은제아미타여래삼존상(1450)〉, 〈금강산 내강리출토 금동아미타불좌상(1451)〉 등 많은 기년작품에서 확인되는 특징이다.

30) 정은주, 「조선시대 명청사행 관련 회화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7, 14면.

에서 북경에 이르던 육로 사행로는 한성-의주-진강성-책문-봉황성-진동보-연산관-요녕(요동도사)-우가장-사령-고평역-산해관-심하역을 지나 북경에 이르는 길이었다.[31]

요동지역을 통해 사행을 다니면서 그곳의 불교 의례도 자연스럽게 접하는 광경도 나타나는데, 허봉의 『조천기』에는 이 지역의 불교의례가 소개되어 있다.[32] 그는 지나는 길에 관음사(觀音寺)를 보고, '설재한 자가 향화(香火)를 나열하고 북소리를 진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하여 당시의 불교 의례를 소개하고, '백탑사(白塔寺)에 당도하였는데 절의 건물이 매우 크고 웅장하였으며 불상은 밝게 빛났다. 커다란 탑이 있는데 벽돌을 포개어 흰 흙칠을 하였다'[33]고 설명하고 있다. 또, 백탑사 불전과 내부의 불상, 백탑사 탑을 관람하고, '절의 북쪽에는 윤각을 세워 놓았는데 빙글빙글 도는 것이 구경할 만하였다.'[34]고 했는데, 윤곽은 티베트계 전륜장일 가능성이 높다(도2). 이외에도 많은 사행록에서 요동 백탑사를 언급하고 있는데, 〈표 1〉의 기록에서 보듯이 백탑사나 인근 사찰을 탐방하며 불상조각을 관람하고 있는 많은 사행기록으로 보아 사행길에 반드시 찾는 볼거리였음을 알 수 있다.[35] 그렇다면,

---

31) 김구진, 「朝鮮前記 韓中關係史의 試論」, 『홍익사학』 제4집, 홍익대 사학회, 1990, 17-22면.

32) 『조천기』는 허봉이 明 萬曆帝의 생일을 축하하는 성절사로 선조 7년(1574)에 북경을 다녀온 여정을 적은 일기이다. 하북성 산해관, 각산, 요해, 산해위중후소, 순경냉포, 요동, 우가장, 반산, 육주하, 해주위, 사영, 고평, 탑산, 중후소, 전둔위, 안산, 행산, 연산, 조장, 동관, 사하, 고영, 광영, 의무려산, 십삼산, 여양, 산동 세부지역이 명확하지 않은 중전소, 진원포, 팔리포, 망부대, 발해 등의 지명이 등장한다.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grpId=&itemId=BT&gubun=book&depth=3&cate1=Z&cate2=&dataGubun=서지&dataId=ITKC_BT_1411A&upSeoji=ITKC_BT_1409A(2019.03.31 검색).

33) 許篈, 『荷谷先生朝天記』 上. "出附郭城到白塔寺. 寺屋宇頗闊壯. 佛像殊炳煥. 有大塔. 累甓而塗堊."

34) 許篈, 『荷谷先生朝天記』 上. "寺之北建輪閣. 回轉可玩."에서 윤각이란 아마도 경전을 안치하는 회전형구조의 '전륜장'일 것이다.

35) 이색(1328-1396)의 『목은집』, 서거정(1420-1488)의 『사가집』 권7 「북정록」, 채수의 『나재집』 卷之二 七言絶, 허봉의 『조천기』, 이준(1560-1635)의 『창석집』(1631) 卷之一 詩, 김육(1580-1658)의 『잠곡유고』, 오준(1587-1666)의 『죽남당고』, 박세당(1629-1703)의 『서계집』, 오도일(1645-1703)의 『서파집』, 채제공(1720-1799)의 『번암집』, 홍대용(1731-1783)의 『담헌서』, 박지원(1737-1805)의 『연암집』, 김윤식(1835-1922)의 『운양집』, 이정신(1660-1727)의 『역옹유고』, 이재흡의 『부연일기』(1828), 박사호의 『심전고』(1828), 이갑의 『연행기사』(1777), 김정중의 『연행록』(1791), 김경선의 『연원직지』(1832), 『갑인연행록』, 『수사록』, 『동춘당집』, 『귀암이원정연행록』(1670) 등 많은 연행록에서 요동 광우사 백탑을 구경하거나 언급했고, 북경에서도 백탑사를 구경하고 있다. 「연행록」,

그 안에서 관람한 불상 또한 티베트계 불상양식을 지녔을까. 그러나, 현재 광우사 백탑의 외벽에 조각양식은 금대 조성된 것으로 송과 고려시대에 볼 수 있던 단아한 조각비례와 통견의 법의를 하고 있다(도3). 그러므로, 백탑사 관람을 통해 티베트계 조각양식의 직접적인 창구를 접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밖에도 연행노정에 있는 금주(錦州)의 관음사, 계주(薊州)의 대불사 등 많은 관람기가 보인다. 또한 사행단은 요동지역의 사찰관람과 함께 북경의 사찰 관람을 통해 티베트계 양식을 접했던 가능성도 있다. 북경 옹화궁이나 천복사도 설명되어 있어서 연행 동안에 요동지역뿐만 아니라 사행로 전반에서 사찰관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찰 관람은 당시 불교미술이 변하고 있는 상황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각적 토대를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표 1〉 사행록에 나타난 사찰 탐방기록

서명	연도	저자	탐방 사찰 기록
『懶齋集』 권2	1568	채수 (1449-1515)	· 요동 백탑사
『朝天記』 上	1574	허봉 (1551-1588)	· 요동 백탑사: 절의 건물이 매우 크고 웅장하고 불상(佛像)은 매우 밝고 빛났으며, 커다란 탑(塔)이 있는데 벽돌을 포개어 흰 흙칠을 하였다. 절의 이름은 아마도 이렇게 하여 붙은 것이었으리라. · 북경 백탑사
『鶴峯全集』 朝天日記	1577	김성일 (1538-1593)	· 요동 백탑사: 망경루에 올라가 백탑사를 바라보았더니 중수하여 새것 같았다.
『연도기행』	1656	인평대군 (1622-1658)	· 광우사(廣祐寺)가 있고 그 속에 백탑(白塔)이 서 있는데, 높이가 약 10여 길이나 되었다. · 청풍사(淸風寺), 보각사(普覺寺)
『櫟翁遺稿』 권7	1721	이정신 (1660-1727)	· 요동 백탑사
『北轅錄』 권2	1760	이의봉 (1733-1801)	· 백탑사라고 (…) 옛날에 광우사(廣祐寺)가 있던 터였으니 십수 개의 작은 금불을 놓아두었다.

한국고전종합DB, http://www.itkc.or.kr 관련 참조.

『湛軒書』	1765	홍대용 (1731-1783)	· 심양성 서쪽에 절이 하나 있는데 규모와 제도가 자못 훌륭하였다. 라마들이 지키고 있는데 역관들이 이르기를, '원 왕실의 원당이었다.'고 하였다. · 광우사의 백탑: 요동성의 서쪽에 광우사가 있는데 심히 웅장하고 화려하며 절 앞에 있는 백탑의 높이는 천길이나 되었다. 혹 백탑사라고도 하는데 (…) · 금주(錦州)의 관음사: 전각의 금불상이 한없이 웅대하고 장엄하였다.
『熱河日記』 황도기략	1780	박지원 (1737-1805)	· 금오교: 백탑사(白塔寺)의 부도와 정각들의 황금 호로병 꼭대기는 때로 나무숲 위로 솟아 있고 (…)
『戊午燕行錄』 권4-5	1789	서유문 (1762-1822)	· 옹화궁(雍和宮) · 북경 백탑사: 관사에 찾아 온 승려와 대화 후 백탑사 관람.
『燕行紀』 권1	1790	서호수 (1736-1799)	· 요양 광우사 백탑 불전에는 自來佛 한 위를 봉안하였다.
『薊山紀程』 권1	1803	미상	· 백탑사: 탑 뒤에 큰 전각(殿閣)이 있는데 부처 3구를 모시고 있다. 어떤 사람은 광우사(廣祐寺)라 부르기도 한다.
『芝汀燕記』 권1	1804	원재명 (1763-1816)	· 백탑(白塔)에 이르렀다. 탑은 8면(面) 13층이고, 하대(下臺)도 3층이나 되니, 높이가 가히 천 길[仞]은 됨직했다. 각층마다 처마가 있고 처마에는 풍경(風磬)을 매달았다. 꼭대기에는 상륜(相輪, 탑의 꼭대기 머리 장식)을 설치하여 구리줄을 매어 두었고, 각 면마다 모두 한 길(丈) 남짓한 불상을 새겼다. 온통 벽돌과 석회를 이용해서 지어서 백탑(白塔)이 된 것이다. · 영수사(迎水寺)
『心田稿』 권2 유관잡록	1828	박사호 (1781-1659)	· 북경 천복사(闡福寺)의 장륙불(丈六佛), 북경 백탑사
『燕轅直指』	1833	김경선 (1788-?)	· 광제사기(廣濟寺記), · 묘응사기(妙應寺記): 일명 백탑사라고도 하는데, (…) 이 탑 속에 여래의 사리를 안치했는데 원 세조가 탑을 열고 보았더니, 깨끗한 물이 출렁거리고 사리가 물 가운데 떠 있는데 두 마리의 용이 호위하고 있었다 한다.

이러한 관람기는 조선 후기까지도 이어진다. 박지원의 『열하일기』[36] 「도강록」(1780)에도 백탑사에 관한 언급이 등장한다. 「요동백탑기」에는 '관제묘를 나와 5마장도 채 못 가서 하얀 빛깔의 탑이 보인다. 이 탑은 8각 13층에 높이는 70仞이라 한다'고 구체적으로 탑의 형태를 묘사하였다. 또, 『열하일기』 「도강록」 편에도 「광우사기」, 「요동백탑기」 등 당시 사찰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당시 사행단의 구성은 삼사(정사, 부사, 서장관)를 중심으로 그들을 수행하기 위한 비장, 사역원 소속의 역관, 의원, 사자관, 화원, 군관, 우어별차, 만상군관, 마두, 노복들로 참 다양하다. 이 많은 사람들이 요녕지역의 불교와 조각양식을 접했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박지원이 백탑사에 도착한 날이 8일째 되는 날이다. 즉, 압록강을 떠나 요동까지 8일이니 아주 빠른 이동이 가능한 것이라 하겠다. 『열하일기』 「도강록」은 6월 24일 시작하여 7월 9일까지 압록강으로부터 요양에 이르는 15일의 기록이다. 덧붙여 청대 건륭제 당시 성행하던 티베트불교의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태학유관록(太學留館錄)」, 「반선시말(班禪始末)」, 「찰습륜포(札什倫布)」, 「황교문답(黃教問答)」 편에 전한다.[37]

『열하일기』 「반선시말」 편에는 북경에 있는 티베트의 국사를 알현하라는 황제의 명을 받아 사신들이 라마승을 만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그 내용은 조선 후반기 티베트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티베트불교에 대한 역사 개요, 활불제도, 원대의 고사까지 언급하여 기록되었다. 또한, 「찰습륜포」 편에서는 티베트사찰의 모습과 티베트승려 수천 명이 황금색 좌계관을 쓰고 팔뚝을 드러낸 붉은 승복차림을 한 모습을 설명하였고, 황제와 티베트승려가 만나는 모습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티베트승려를 만나서 받은 물품이 여러 색의 모직과 붉은 보료, 티베트 향, 작은 황금불상을 직급대로 받은 일과 이 불상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분분한 의견이 기록되었다. 「동불사후지(銅佛事後識)」 편에 이때 받은 불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36) 박지원은 정조 4년(1780) 청나라 건륭제의 칠순연을 축하하기 위한 사행길에 다녀왔다. 이때의 기록을 김택영이 『연암집』(1901)에 간행하였다.

37) 박지원, 「도강록」, 『열하일기』.

> 소위 동불이란 것은 높이가 한 자가 넘으니, 이것은 호신불이라 한다. 중국에서는 으레 멀리 여행하는 자에게 서로 선사하여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조석으로 공양하는 것이요, 티베트 풍속에는 연례로 진공하는데, 부처 한 틀로써 방물을 삼는 것이니, 이번 이 동불도 법왕이 우리 사신을 위해서 여행의 무사함을 비는 가장 아름다운 폐백으로 준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 부처와 인연을 가진 일이 있고 보면, 평생에 누가 되는 것이거늘 하물며 이것을 준 자가 번승(番僧)이었음에랴.[38]

이 글에서 보면, 번승(티베트승려)에게 불상을 받았으므로 이때 받은 불상은 티베트 양식의 불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조선 후기의 사람들까지 이해되는 티베트불교는 언제부터 이해된 것일까. 이미 고려 말 원간섭기를 통해 라마교의 유입과 더불어 조선으로 이어져 온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질적인 티베트계 불교미술이 거부감없이 조선에 전래되는 상황은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접경지역인 요동은 비공식적이라도 새로운 문물의 유입처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높다. 이것은 요동지역의 종교유산과 조선시대 새로운 조각양식의 연계성을 통해 이해된다.

2) 조선과 요동지역 불교조각 양식의 특징

불교가 억압되면서 새로운 양식의 발전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많은 조선의 사행록을 통해 불교미술의 유입 경로 중 하나로 요동지역이 지니는 지정학적 역할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었다. 요동지역은 북방민족의 주거지로 티베트불교가 신봉되고 있었다.

이 지역은 중국에서 광동출신으로 추방된 선승인 함가(函可, 1611-1659)를 제외하고, 청대까지 요녕지역에 선불교 활동은 없었다[39]는 것과 출토 유물의 현황을 통해서도 요동 불교유산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와 국경을 접했던 요동지역의 불교유산은 티베트불교를 믿고 있었던 북방

38) 박지원, 「班禪始末」, 『열하일기』.

39) 杜繼文・魏道儒 , 『中國禪宗通史』, 江蘇人民出版社, 1993, 605면; 존 조겐센, 「16-19세기 한국과 중국불교 비교상의 제문제」, 『동아시아 불교사 속의 한국불교』,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2004, 93면 재인용.

민족에 의해 티베트계 양식에 기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접경유산으로 새로운 문물의 창구역할을 하는 지정학적 위치와 함께 명대 황실의 티베트불교 양식의 발전과 더불어 조선 전기에 티베트계 불교양식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했을 것이다.

원대 티베트불교는 13세기 초 최신 불교예술 형식이었다. 따라서 원 통치와 더불어 중국 내륙에 진출한 티베트 불교예술 역시 중원지역에서 유행하게 된다.[40] 원대 티베트불교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조각을 중국에서는 '범식(梵式)'이라 한다. 이 시기 티베트식 조각 특징은 보살의 경우 오엽보관(五葉寶冠), 화려한 영락 등을 특징으로 한다.[41] 불상 조각에서는, 다소 갸름한 얼굴형에 위로 높게 솟은 육계, 편단우견착의에 항마인의 수인, 앙련과 복련으로 장식된 이중대좌 형식 등이 있다. 이러한 조각양식은 요녕성 조양북탑출토 약사불을 통해 보듯 명대 정형화되어 있다(도4).



도4. 약사불, 명대, 조양북탑박물관 소장.

특히, 많은 수의 조선 사람이 요동을 오가며 명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조선 전반기부터 요녕성 지역에 거주하던 여진족과 조선의 직접 교류를 추정할 수 있는 유물을 요녕성박물관에서 찾을 수 있다. 요녕성박물관에 전하는 물품은 지역출토품과 청나라 마지막 황제 부의가 청궁에서 가져온 소장품으로 구성되어있다. 현재, 요녕성박물관에는 고려청자부터 조선시대 자기가 약 백여 점 가량 전하고 있다. 종류도 백자고족완, 청화진사화조문호, 청화목단문호, 청화운룡문반 등 시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기종이 전한다.[42] 이처럼 다양한 도자기의 교류는 이곳에서 활발한 문물의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요녕성에 전하는 불상조각은 약 4,000여 점에 달하는데, 요녕성박물관의 2009년

40) 黃春和, 『佛教造像藝術』, 紫禁城出版社, 2001, 128-129면 참조.
41) 李玉珉, 『佛陀形影』, 國立故宮博物院, 2011, 174면.
42) 李石杰, 「遼寧省博物館藏李朝瓷器簡介」, 『遼海文物學刊』 1995年 1期(總19期), 遼寧省博物館・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1995, 256-259면.

기획전시인 '묘상장엄—요녕성박물관소장불교조각정품전(妙相庄嚴—遼寧省博物館藏佛教造像精品展)'에 출품된 201존 중에는 원대 아촉불과 명 영락제의 석가불상 등 티베트 불교미술 양식을 보여주는 불상조각이 124존이나 포함되었다.[43] 특히 원・명・청대의 요녕성박물관 소장품으로 나온 작품은 대부분 티베트 불교미술 양식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원대 〈아촉불좌상(14세기, 요녕성박물관소장)〉(도5)과 명 영락기 〈석가불좌상(15세기, 요녕성박물관소장)〉(도6)의 항마촉지인의 수인과 높고 뾰족한 정상계주, 편단우견의 착의법, 넓은 소매자락, 오엽관에 관대장식, 앙・복련 연화대좌 등은 이 시기 티베트불교 양식의 전형적인 형식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미륵보살상이나 녹도모상 등 티베트 지역 및 자금성박물관에 소장된 티베트계 조각양식을 가진 조각이 요녕성박물관 조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이들 조각은 명 영락제 시기 이후 이동이 편리한 작품의 크기가 높이 20cm 내외의 작은 크기로 이동이 쉬운 크기로 제작되어 있다. 이것은 불교조각의 교류를 더 진작시키는 기능을 하였을 것이다. 특히 네팔에서 조성된 〈금동녹도모상(15세기)〉(도7)의 존재는 요녕성까지 전해졌던 네팔 불교조각의 유입을 알 수 있는 예이다.[44]

요녕성 일대의 불교는 명대 들어와 활발해지고 있다. 명대 초기 요녕성의 불교 현황은 『요양현지』(1928)에서 천왕사 중수(1460), 서운사 중수(1466) 등[45]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중수 및 창건이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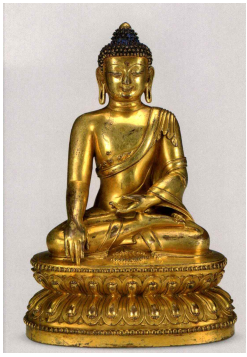
그러나, 이들 지역의 사찰은 많이 훼손되어 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그런데, 요녕성 요양 영수사촌 자항사(慈航寺)에서 수집되어 요양박물관에 소장된 미륵불, 석가불, 지장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상 등은 매우 의미 있는 조각들이다.

---

43) 張力・徐戎戎,「妙相莊嚴 遼寧省博物館藏佛教造像精品展」,『收藏家』, 2010年 5期, 北京市文物局, 2010, 3면.
44) 綠度母는 관세음보살의 化身이다. 梵名로 Tara로 불리는 綠度母는 중국에서 고대에는 多羅菩薩로 불리기도 하였다.
45) 隋中岳 외,『遼陽縣志』, 第二工科實業學校, 1928, 98-9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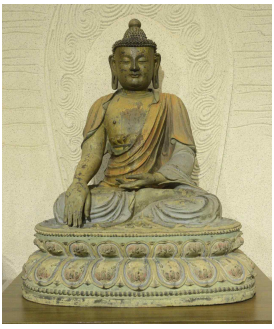
도5. 아촉불좌상, 원, 58×50cm, 요녕성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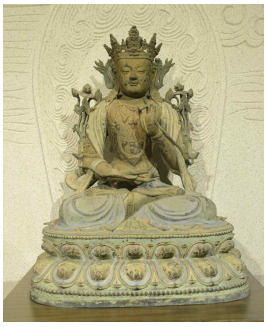
도6. 석가불좌상, 명 영락(15세기), 19.2×13.2cm, 요녕성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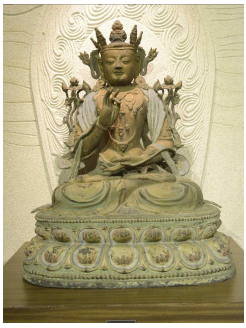
도7. 녹도모상, 네팔 15세기, 높이 19.5cm, 요녕성박물관 소장.



도8. 석가모니불좌상, 명 1514년, 遼陽 迎水寺村 慈航寺출토, 遼陽시박물관 소장.



도9. 문수보살좌상, 명 1514년, 遼陽 迎水寺村 慈航寺출토, 遼陽시박물관 소장.



도10. 보현보살좌상, 명 1514년, 遼陽 迎水寺村 慈航寺출토, 遼陽시박물관 소장.

미륵불 뒷면에 '정덕 19년에 제조했다(正德十九年制)'(1514)는 명문을 통해 지장보살상을 제외한 4구의 불상이 명대 조성된 것이 확인된 이 지역의 불상이다. 『요양현지』에 의하면, 영수사는 자항사로 3층 전각에 지장보살, 석가불상, 미륵전을 갖춘 큰 사찰이었으며, 병자호란(1636)에 청나라 군사가 병참기지로 사용한 곳으로 이곳은 이후 동경역으로 불리웠다.[46] 이들 불상 중 석가불좌상(도8)과 문수·보현보살좌상(도9·10)은 각각 명대 불상양식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현재 〈건칠석가불좌상(명 1411년 추정,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소

46) 같은 책, 103면.

장)〉(도11)이나 〈석가불좌상(명 1426년, 북경고궁박물원소장)〉(도12) 등에서 보이는 형식 특징과 강한 친연성을 갖는다. 그런데 이들 불상에서 육계부분을 머리 위에서 높게 솟아오른 후 중앙에 정상계주를 올린 형식이 도드라진다. 이와 같은 정상계주의 표현은 티베트계 불상이 유행하면서 15세기 전후해서 티베트계 불상이 명대 왕실에서 유행하는 양식이다.



도11. 건칠석가불좌상, 명 1411년 추정,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소장.



도12. 석가불좌상, 명 선덕원년 (1426), 고궁박물원 소장.



도13. 대일여래좌상, 大理 盛明 2년 (1163), 상해박물관 소장.

이러한 정상계주가 나타나는 형식은 티베트계 양식의 영향으로 간주하는데, 그 시원 불상은 12세기에 확인된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상해박물관에 소장된 〈大理國 盛明 2년 대일여래좌상(1163)〉(도13)은 현재 기년작으로 정상계주를 갖춘 가장 오래된 불상이다. 이 불상을 통해 정상계주의 출현이 티베트 조각에서 처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불상은 정상계주의 표현 외에도 편단우견, 왼쪽 옷깃의 반전 옷주름, 항마촉지인 등이 명 영락기를 비롯한 조선 전반기 불상형식의 연원이라 할 만큼 비슷한 형태적 요소가 많다.

영수사촌 자항사(慈航寺) 출토의 조각의 얼굴 상호도 다소 엄격하면서도 넓적한 사각형의 형태이다. 또한, 변형편단우견식 착의법을 하고 오른 손바닥 전체를 아래로 내린 형식과 낮은 무릎처리는 명대 15세기에 티베트계 조각양식이 전통조각과 융합되는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명 가정기(1522-1566)에 불교를 억제하고 도교를 숭상하게 되면서 변화된 것이

다. 명 가정기부터 만력 연간(1573-1620)까지 티베트불교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면서 도교가 발전하고 전통불교가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명 만력기에 이르러 황제의 모친인 자골태후(慈圣太后)의 숭불책으로 티베트불교와 전통불교가 융합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47] 이러한 명나라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조각이 바로 〈건칠석가불좌상(명 1411년 추정, 메트로폴리탄박물관소장)〉(도11)이나 자항사출토 불상(도8・9・10)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각은 기본적으로 티베트계 양식에 바탕을 두고 청대까지 형식이 이어지면서 명확한 시기구분도 어렵다. 이러한 시기구분의 어려움은 청대 자금성에 속해 있던 티베트 불상조각의 유입 경로가 조공으로 들어온 것과 궁정의 물건을 만드는 사무소에서 제작되어 원대에서 청대까지 소장된 것이 혼재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48] 또한 티베트 불교사찰 건립에 한족 장인을 보내 국가적 지원을 하는 경우도 빈번했기 때문에 결국 티베트 지역에서도 중국 전통불교가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티베트의 백거사(白居寺, 1418)는 그 대표적인 사찰이다. 그러나, 청대불상은 명대불상보다 더욱 뾰족하고 갸름한 얼굴형이나 편단우견의 착의법을 선호한 형식으로 티베트에서 조성된 〈석가불좌상(청대, 중경삼협박물관소장)〉(도14)에서 보듯이 명대의 넓적한 형태보다 더 갸름한 형식을 갖는다. 반면, 조선시대의 조각은 요녕성의 자항사 출토품 같은 명대 조각양식과 더 친연성이 많다.

따라서 요녕성의 지리적 위치와 불교미술의 특징이 조선 전반기의 티베트계 양식을 반영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교적 가치관이 투철했던 사행단에서 지도층이 주도적으로 불교미술 양식에 흥미를 가지고 수용했다가 아니라 사행의 과정을 통한 관람에 참여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통해 티베트계 양식이 보편화된 불교양식으로 자연스럽게 이해되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 조선 전반기 조각 장인이 중국 명 왕실 불교양식을 수용한 활동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명대 북경과 요동지역에서 볼 수 있는 티베트계 불교미술의 큰 특징인 정상계주의 표현, 편단우견의 항마촉지인을 한 형식, 앙련・

47) 김경미, 앞의 글, 102-103면; 黃春和 著, 『佛教造像藝術』, 石家庄: 河北省佛學院, 2001, 139면 참조.
48) 王家鵬, 『故宮博物院藏文物珍品大系—藏傳佛教造像』,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商務印書館, 2003, 17-18면.

복련으로 이루어진 이중대좌 장식에서 보이는 티베트계 양식 특징과 넓적한 얼굴과 변형된 편단우견착의법을 지닌 전통조각양식을 혼합한 형식의 유사성은 조선전기 불교조각에서 특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 〈금동불좌상(조선 15세기,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유물번호 신6620)〉(도15)이나 〈금동관음보살좌상(조선 전기, 국립대구박물관소장, 유물번호 신수6624)〉(도16), 〈삼존불회도(조선 1498년, 중앙불교박물관소장)〉(도17) 등에서 보이는 형태적 특징은 요녕성 자항사출토의 〈석가불좌상, 문수·보현보살좌상(명대, 요양박물관소장)〉(도8·9·10)과 많은 유사점을 볼 수 있다. 〈금동불좌상(조선 15세기, 국립중앙박물관소장)〉(도15)은 머리부분은 뾰족한 정상계주, 높게 솟아 오른 육계, 앙련·복련의 이중대좌에서 전통적인 티베트계 형식을 반영하지만, 네모진 얼굴과 신체의 각진 형태와 변형된 편단우견의 착의는 명 15세기 후반과 16세기 양식과 상통한다. 이 시기 명나라 불교조각양식은 건장한 어깨선과 네모난 신체, 넓적한 얼굴형, 양주식 편단우견의 뒤집혀진 옷자락 등에서 보이는 전통양식이 티베트 양식과 접목된다.

이러한 조각은 수종사오층석탑이나 〈심곡사칠층석탑 출토불좌상〉(도18)에서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슷한 양식이 같은 시기에 발전하는 것은 종교적 공감이 시대와 공유하며 보편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조선전기가 억불에 의한 정책탄압으로 불교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해서 문화의 유입이 완전히 단절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하겠다. 그리고 정확한 경로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북경에서 유행한 티베트계 조각양식이 조선으로 들어와 조성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요동의 접경지역 종교유산이 북경 양식을 같은 시기에 발전시키는 현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접경지역 유산의 지리적 특성상 양식의 교류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도14. 석가불좌상, 청대, 중경 삼협박물관 소장.



도15. 금동불좌상, 조선 15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신6620).



도16. 금동관음보살좌상, 조선 전기, 높이 26.2cm, 국립대구박물관 소장(신수6624).



도17. 〈삼신불회도〉, 조선 1498년, 수종사오층석탑출토 금동불감내벽, 중앙불교박물관 소장.



도18. 심곡사 칠층석탑출토 불좌상, 조선 전기.

4. 맺음말

요녕성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조선과 그 문화의 교류가 필연적으로 형성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접경지의 종교유산이 인접문화권에 미치는 공감성이라 말하고 싶다. 조선에서 중국을 오가던 사행원들의 이동에서 만나는 불교유적은 억불정책이 심했던 조선 전반기에 명대 불교 및 미술양식을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었을 것이다. 단편적이나마 사행기록을 통해 조선과 접한 지역의 문화를 살필 수 있는데, 특히 이들 지역

의 불교문화를 추론할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또한, 『세종실록』 8년 6월 11일(1426)에 중국 사신 황엄이 돌아가는 길에 일어난 일이 언급되었는데, "칙사 황엄이 북경으로 돌아갈 때에, 요동 지휘 천호의 군인들이 황엄을 맞이하려고 의주에 이르러 한 달 남짓 머무르면서 사물을 강제로 매매해, 유정이 금지하니 듣지 않았다. 황엄이 강을 건널 때 객관에 깔 자리를 빼앗아 사물을 싸는 자가 있으므로 (…)"[49]라는 기록을 통해 밀무역을 통한 간접적인 문물의 교류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단편적인 활동을 통해 사행과 밀무역과 같은 교류를 통해 이질적인 티베트계 불교미술이 자연스럽게 조선에 전래되는 창구역할을 했던 상황을 추정할 수 있다. 즉, 불교사찰 관람을 한 사행단과 그 수행자들의 활동이 조선 전반기 새로운 양식의 출현과 유행에 교두보 역할을 담당했을 가능성을 열고 생각해보자. 또한, 반드시 공식 유입이 아니더라도 요녕지역의 지정학적 위치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티베트불교가 발전한 이 지역 불교미술이 조선 전반기 새로운 양식의 유행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국제 관계에서 상호 질서의 유지는 상호 균형과 견제를 통한 세력균형을 이루면서 실리주의에 입각한 문명의 수용과 전파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그런데 근대 이전의 한중관계를 보는 시각의 일부에는 중원의 관점에서 일방적인 문화의 전파 및 수용으로 이해하는 문제점을 보여준다. 이것은 조선 이후 유교주의적 관점에 의거하여 한족 중심으로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짐으로써 역사의 다양성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중앙과 변방의 상호작용에서 어느 한쪽만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계 체제 이론 중에서 체제 변혁에서 '준변방(semi periphery)'의 역할을 주목한 것이 있다. 준변방은 중심과 주변 사이에 위치하는 지역 또는 두 중심 간에 위치한 지역이며 중심과 주변의 성격이 혼합되어 나타나거나 중간적인 형태를 띠기도 하며, 양쪽을 연결시키는 곳이다. 10-12세기 거란과 금이 발전했던 만주지역은 바로 '준변방지역'에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50] 따라

49) 『世宗實錄』 8년 6월 11일. "(…) 勅使黃儼回京, 遼東指揮千戶軍人, 迎儼到義州, 留月餘, 抑賣私物, 有定禁止不聽. 儼及渡江, 指揮輩, 有奪客館鋪席, 裹私物者. (…)"

서 문화유산의 발전을 이해하는 영역에서는 접경유산의 역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관찰해야 할 것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한 조선 불교와 미술양식의 이해는 이 시기의 불교미술의 교류 및 현황이 보다 폭넓게 소통했던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현재 중국에서 티베트 양식의 불교조각은 운남성, 티베트지역을 제외하고 요동성박물관에 가장 많이 소장되어 있다. 이 같은 현황은 북방민족의 기세가 강했던 이들 지역이 요, 금, 원대를 걸쳐 지속적으로 티베트불교가 발전한 지역이며, 이들 지역의 특징이 자연스럽게 조선시대에 티베트계 미술의 전래에 수월한 교류적 기반을 형성했다고 파악할 수 있다. 즉, 명・청대 요동지역은 여전히 여진족과 만주족의 중심 활동무대였고, 그들의 종교적 취향이 불교미술에 반영되어 이 지역에서 발전했던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명나라에 오가는 조선 사신들의 경유지라는 요동지역의 지리적 위치와 북방민족이 믿은 불교가 티베트계라는 특성을 고려하고, 일 년에 많게는 다섯 차례를 오가는 사행단의 사찰관람기가 항상 언급되는 점은 당시 불교양식이 조선에 전파되는 현상에 일정 정도 기여했을 것이라는 연계성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게다가 사행단의 규모가 한 회에 수십 명에서 수백 명으로 각각 그 파급효과는 상상 이상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국경을 통한 문화교류의 장을 통해 억불정책으로 인해 새로운 양식의 수용이 어려웠던 조선에 티베트 불교미술에 대한 이해와 풍습이 확산될 수 있었고, 이질적인 티베트계 양식이 조선 전반에 걸친 양식의 기반으로 자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 한 부분을 기여했다.

50) 윤영인, 「10-12세기 동아시아의 다원적 국제질서와 한중관계」, 『동아시아국제질서 속의 한중관계사—제언과 모색』, 동북아역사재단, 2010, 149면.

▮ 참고문헌

朴趾源,『渡江錄』, 熱河日記.
徐居正,『北征錄』, 四佳集 卷7.
蘇世讓,『赴京日記』(1533).
李穀,『稼亭集』(1344).
李圭景,『五洲衍文長箋散稿』.
李埈,『蒼石集』 卷一.
李恒福,『朝天錄』, 白沙先生別集 卷五.
李海應,『薊山紀程』(1803).
蔡壽,『懶齋集』 卷二.
許篈,『荷谷先生朝天記』.
洪大容,『燕記』, 湛軒書 外集 卷10.

권인용,「명 중기 조선의 입명사행」,『연행록연구총서6』, 학고방, 2006.
김경미,「조선 전반기 티베트계 명양식 불교미술의 영향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4.
김종철,「元영향기의 高麗佛教界 動向 硏究」,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97.
김철웅,「高麗와 중국 元, 明 교류의 통로」,『동양학』 제53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13, 65-82면.
김혈조 역,『열하일기』, 돌베개, 2009.
박지원, 고미숙 역,『세계 최고의 여행기 열하일기』, 북드라망, 2013.
山口瑞鳳・矢崎正見 지음, 이호근・안영길 옮김,『티베트불교사』, 민족사, 1990.
유은숙,「우량카이 3위와 몽골・명 관계」, 2013년 명청사학회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자료집: 주변에서 본 명청시대, 2013년 7월 4-5일
윤영인,「10-12세기 동아시아의 다원적 국제질서와 한중관계」,『동아시아국제질서 속의 한중관계사—제언과 모색』, 동북아역사재단, 2010.
이승희,「고려말 조선 초 사천왕상 연구」,『미술사연구』 제22호, 미술사연구회, 2008, 117-150면.
정은주,『조선시대 명청사행 관련 회화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7.
조규익 외,『연행록연구총서7—정치・경제・외교』, 학고방, 2006.
존 조겐센,「16-19세기 한국과 중국불교 비교상의 제문제」,『동아시아 불교사 속의 한국불교』,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2004.
청허 휴정 지음, 박경훈 역,『청허집』, 동국역경원, 1987.
황성주,「朝鮮前期 豆滿江流域에 나타나는 두 개의 '朝鮮'」,『명청사연구』 제37집, 명청사학회, 2012, 245-273면.

杜繼文・魏道儒,『中國禪宗通史』, 江蘇人民出版社, 1993.
謝繼勝,「吐藩西夏歷史文化淵源與西夏藏傳繪畫」,『西藏研究』 2001年 第3期, 西藏社會科學院, 2001, 35-48面.
史金波,『西夏佛教史略』, 宁夏人民出版社, 1988.
孫悟湖,『漢族, 藏族, 蒙古族宗教思想文化交流研究』,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06.

隋中岳 外,『遼陽縣志』, 第二工科實業學校, 1928.
王世貞,「三衛志」,『明代蒙古漢籍史料匯編』, 內蒙古大學出版社, 2006.
遼寧省地方志編纂委員會,『遼寧省志 地理志・建置志』, 遼寧民族出版社, 2002.
熊文彬,「從版畫看西夏佛教藝術對元代內地藏傳佛教藝術的影響」,『中國藏學』 2003年 第一期, 中國藏學研究中心, 2003, 66-79面.
李玉珉,『佛陀形影』, 國立故宮博物院, 2011.
李際寧,『中國板本文化叢書—佛經版本』, 江蘇古籍出版社, 2002.
張亞莎,「宋代的西藏美術」,『西藏大學學報』 第23卷 第1期, 西藏大學學報 編輯部, 2008, 79-84面.
中國美術全集編輯委員會 編,『中國美術史』 元代券, 人民美術出版社, 1996.
夏金華,『中國佛教的制度與儀軌』,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2010.
黃春和,『佛教造像藝術』, 紫禁城出版社, 2001.

Marsha Weidner ed, "Prajnaparamita Sutra from the Qisha Tripitaka", *Latter Days of the Law: Image of Chinese Buddhism 850-1850*, Spencer Museum of Art: The University of Kansas, 1994.

「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
「燕行錄叢刊」, 한국의 지식콘텐츠 누리미디어, https://www.krpia.co.kr/.

【Abstract】

A Study on the Buddhist sculpture Art Exchanges between the Joseon Dynasty and the Liaodong Region

Kim, Kyung-Mi*

The Liáodōng Peninsula (遼東省) was historically under more influence of Koreans or the northern people than that of Han Chinese. The records on the northern people can be found in various historical writings including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朝鮮王朝實錄), *Gukjobogam* (國朝寶鑑), *Gijaesacho* (寄齋史草), *Ganijip* (簡易集), *Nanjungjaprok* (亂中雜錄), *and Donggyejip* (桐溪集). From these records, we may learn more about the life of the northern people and their relations with Joseon. In addition, many travel records from diplomatic envoys—including *Yohaephyeon* (遼海編, 1469) by Ye-kyeom (倪謙), *Phyohaerok* (漂海錄, 1478) by Choi-bu (崔溥), and *Bukyungilgi* (赴京日記, 1533) by Soseyang (蘇世讓, 1486-1562)—during the Joseon Dynasty mention different races in the region including the Jurchen (女眞) and Khitan (契丹) people, and the Mongolians. Also, as it shows in *Jochunrok* (朝天錄, 1598)—the travel records written by Yi-Hangbok (李恒福, 1556-1618), many Korean immigrants were living in the region.

What may be inferred from the facts is that the Liáodōng Peninsula to the north of Joseon had not been under constant rule of the Ming Dynasty. It was where the culture of the Later Jin (後金) and Mongolia (蒙古) had been prevalent under the strong influence of the northern people and their religion, Tibetan Buddhism.

The regional Buddhism culture had a basis to flow into Joseon through Bukyungsahaeng (赴京使行)—regular diplomatic envoys to Ming since the first year of the King Taejo's rule in Joseon. In fact, 15 different travel records—including *Jochungi* (朝天記, 1574) by Huh Bong (許篈)—describe the local temples in the Liáodōng region including the "White Stupa Temple (白塔寺)", with explanations of the stupa and the inner parts of the place.

The Buddhism art style cultivated in the region represents the Ming Dynasty art form reflecting the Tibetan culture and is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of Buddhism

* Invited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World Heritage Studies, Konkuk University.

sculpture during the Joseon Dynasty. In this process, it promoted cultural exchange through the borders and influx of understanding and tradition of the Tibetan Buddhism art into Joseon. Since it was difficult to adopt new styles due to the policy against Buddhism (抑佛政策) during the time, the distinctive and foreign style from the Tibetan region laid a foundation of Buddhism art style throughout Joseon.

Keywords: Liaoning, Transboundary Heritage, The Joseon Dynasty, Buddhist sculpture, sahaengrok.

접수일: 2016.01.14. ‖ 심사일: 2019.04.10. ‖ 게재확정일: 2019.05.03.